

학생의 날

학생의 날 주간 11월 3일~6일

1999년
11월 3일
학생의 날



주최 : KSCF고등부(SCM), 흥사단고등학생아카데미, 교교-Y, 녹색청소년단.
 주관 : 1999 학생의 날 기념·복원사업 준비위원회,
 흥사단, 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KSCF), 서울YMCA, 전교조 학생생활국,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ZING Communications Inc.
 후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KSCF), 흥사단, 서울YMCA,
 준비위원회 : (02)763-8776

목차

- 2 인사말
- 학생기획단 일동
- 3 오늘 우리에게 학생의 날은...
- 김성진, 박수정, 이유상
- 7 광주학생운동기념탑 비문
- 8 학생회에 제안합니다
- 학생의 날 기념식순 및 프로그램
- 9 선생님들께 제안합니다
- 훈화자료 및 수업내용제안
- 15 학생의 날 역사이야기
- 광주학생운동
- 47 광고 - 1999년 학생의 날 주간행사
- 48 함께 한 단체들입니다

학
생
의
날



학생의 날 기념 홍보자료집

1999년 11월 3일
학생의 날

도전,
새 천년을 향한
청소년의
힘

1999 학생의 날 기념 및 복원사업
준비위원회

우리가 함께 학생의 날을 만들어 갑시다.

1929년 선배들의 고귀한 싸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런 오늘, 학생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선배님들의 고결한 정신과 행동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학생의 날 주간을 선포하며 다양한 내용의 사업을 준비합니다.

1999년의 학생의 날에 드리는 우리의 다짐은 학생이 교사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인이자 주체로 서고자 노력할 것이며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의 인권이며 의무임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함께 해야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이땅의 청소년들이 인권이 지켜질 것입니다.

1999년 11월 3일
학생기획단일동

< 최기웅(KSCF고등부-KSCM), 하순정(홍사단고등학생아카데미),
이근영(서울YMCA-녹색청소년단), 변지혜(서울YMCA-고교Y),
강성구(대한성공회노원나눔의집)>

새 전년을 향한 청소년의 다짐

“ 학생의 날을 되찾자 ”

김 성진(경신고 1학년)

1929년 11월 3일, 광주의 학생들은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항하여 그 동안 쌓아 왔던 울분을 터뜨리며 들고일어났다. 이 시위는 당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3월까지 계속되었으며,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시위로 인해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582명, 무기정학이 233명, 검거된 학생이 무려 1,642명에 이르렀다. 이 운동은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일으킨 것이요, 일제의 문화통치 속에서도 학생들이 민족성을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4년이 지난 1953년 10월 광주항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문교부령으로 '학생의 날'을 제정하였다. '학생의 날'은 50-60년대 학생들과 교사들의 노력으로 4.19 혁명을 거치며 사회의 축제와 자랑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하지만 7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지만,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한 학생과 교사들의 노력과 민주적 투쟁과 영원으로, 1984년 다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생의 날'은 달력에 표시된 날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광주항일학생운동에 주체로 일어난 것은 오늘날의 중고교생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학생의 날'은 각 대학에서 기념 행사를 갖는 것이 다 이고, '학생의 날'의 주체인 중고생들은 '학생의 날'의 의미도 잘 모를뿐더러, 심지어 '학생의 날'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태반일 것이다. '학생의 날'은 학생들이 형광어린 자기의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해 거울앞에 서는 날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참 학생 상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날이다.

그렇지만 광주항일학생운동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며, 성적의 노예가 되어가고, 사회의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반항아 또는 문제아로 낙인 찍혀가고 있다. 과거의 학생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굴레를 깨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자주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지켰다. 하지만 오늘날의 학생들은 과거의 선배들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지 못한 채 어른들의 사회에 순응하고 어른들의 굴레 속에 갇혀 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학생의 날'의 의미는 더 절실해지는 것이다. 1년에 하루만이라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를 벗어나 자주적이고 적극적이며 당당하게 우리 학생들만의 행사를 갖자는 것이다.

이제는 학생들은 자주적으로 일어나고 뒤에선 교사가 도움을 주며, 학교 당국과 정부

이제는 학생들은 자주적으로 일어나고 뒤에선 교사가 도움을 주며, 학교 당국과 정부의 배려로서 다시금 '학생의 날'의 행사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학생의 날'의 행사를 가지며 오늘날의 학생들은 과거 우리 선배들의 자주 의식과 애국애족의식, 투쟁정신, 희생 정신, 그리고 일치단결격과 동로애, 당당함을 본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학생의 날'이 갖는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알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 학생의 날 "

박 수정(고교Y 시사토론클럽 청목동 - 1학년)

이 글을 쓰기 전에는 학생의 날이 있는지조차 모르던 나였다. 달력에 표시되어 있던 것을 어렵게 보고 지나가도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저 지나쳤을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날, 스승의 날은 노는 날의 하나로 기억되어졌다. 갑갑한 생활 속에서 하루를 쉬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가뭄에 내린 단비 같은 것이니 말이다. 학생의 날이 만약 부활한다면 아이들은 쉬는 날이 생겼다고 좋아하고 선생님들은 수업일수를 맞추느라 불평을 할 것이다. 하지만 달력에 뚜렷이 표시되어 있는 학생의 날은 이런 단편적인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 암울한 일제 시대에 이종적인 교육체계에 저항하고 독립을 외친 학생들에게서 유래된 날이니까 말이다.

그 옛날의 열 일곱과 지금의 열 일곱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요즘의 학생들을 연상한다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연상될 것이다. 술, 담배, 갑갑적이고 예의를 모르는 10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대 사이에서는 진지함보다는 흥미위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다고 할 수도 있다.

왜 그럴까?

왜 10대는 이렇게 변한 것일까? 한국은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피해의식인지 선진국을 따라 잡아야 한다는 욕망으로 나라를 일궈왔다. 교육도 학생을 생각하기보다는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두었고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아무리 인성교육을 한다지만 뿌리깊은 관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0대는 이런 갑갑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행동 하나 하나가 점수화가 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교육기간이 연장되면서 10대는 학생이라는 틀에 갇혀, '이건 안 돼'라는 말속에서 주체성조차 흔들리고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뚜렷함을 잃어가고 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맞춰 가는 그들. 그들은 이런 생활에서 빛나

간 피해의식을 느끼며 생활했는지 모르겠다. 시적은 애정에서 시작되었어도 그 과도한 애정이 더욱더 10대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로 인해 공식적인 자리는 입시 경쟁이고 뒤로는 향락적인 것에 빠져 자신을 의지했던 것일까? 우리들의 10대는 이렇게 변해왔다.

이 날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의 학생들이 일으킨 독립운동을 기념하여 만든 날이다. 우리와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일어났던 날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행동 수 있는 학생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그 날의 학생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겠고 거의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되었다. 그들은 그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광복 후 우리 나라의 정권은 대다수가 친일파들이 쥐고 있었고 다시 시적 할 수 있었던 기회를 그들에게 빼앗겼다. 그들의 정권은 다시금 부조리를 낳는 온상이 되어 이어졌고 과거 우리의 선배들은 다시 그것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운동권 학생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처리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인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 십 년 동안 이어진 부조리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학생, 10대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끌어나갈 나날 나라인데 우리에게까지 그런 것을 물려주어야 할까? 뒷물이 많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나라는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 특히 학생들도 생각해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학생들의 의견은 줄곧 무시되어 왔고 지금은 의견을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사회 구조가 변화해 버렸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학생의 날은 이런 것 때문에 되살려야 한다.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한 가지이다.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독재 정권 때 권력에 대항하는 학생들의 성정이 두려워 학생의 날을 폐지하기도 하였고, 지금의 10대가 많이 변하기도 하였지만 벌써 우리 선배들의 과거를 잊을 수는 없다 아니 잊지 말아야 한다. 학생의 날을 되살리며 그때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학생은 더 이상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고 자신의 의지가 없는 기계가 아니다.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겠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고 나갈 줄 아는 학생들의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는 학생의 날에서 그것을 얻어야 한다.



“ 의미해져 가는 학생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

이 유상 (경신고 2학년)

몇 년 전부터가 우리는 “학원 폭력”,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라는 말들을 대중 매체와 주변으로부터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의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터인 학교를 다니면서 난무한 폭력과 왕따(집단 따돌림)라는 것 등으로부터 적어도 한두 번은 당하기도 하고 겪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모습에 어긋나는 잘못된 생각과 습관으로 많은 청소년들은 옴주나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학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바른 학생의 참모습을 찾았으면 합니다.

1929년 광주에서 우리의 학생들과 일본(당시: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충돌하게 된 것을 계기로 광주 항일 학생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은 '독서회', '소녀회'와 같은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학생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생의 날은 그 당시의 학생들의 진취적이고 자주적이며 애국애족의식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1953년 10월 문교부령으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민족 독립과 학원 자주를 위한 일제시대 학생들의 피땀의 결정체인 학생의 날은 60년대 이르러 학교사회의 축제와 자랑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거듭될수록 독재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70년대 학생의 날은 역사의 자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984년 국회를 거쳐 다시 학생의 날은 탄생되었으나 옛 우리의 선배들의 정신과 모습들을 다시 지금의 우리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학생의 정신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더 바로 잡자는 학생의 날의 의미를 알기논컸네 우리는 학생의 날의 존재도, 그리고 학생의 날이 언제 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더욱 더 옛 선배님들의 정신이 더욱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의 탄생일을 기리기 위해서 5월 15일을 우리는 '스승의 날'로 정해서 기념행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육의 주체이자 앞으로의 세상을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에게는 학생의 날이 언제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학생에게 어떤 뜻을 부여하는지조차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는 학생의 날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상기시켜 주지 못한 교육제도의 문제와 언론매체의 적은 관심이 그 큰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의 모습에 옛 선배들의 진취적이고 희생적이며 자주적인 면을 조금이나마 보기 위해서는 스승의 날과 같이 학생의 날의 행사와 의미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학생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더욱 변질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학생운동기념탑 비문

단기 사천 이백 육십 삼년 십일월 삼일,
이 날은 광주 학생들이 일제의 탄압에 항쟁하여 일어난
민족 점거의 날.
굴욕으로 사느니 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의지로
너도나도 뛰쳐 나거자,
이에 호응하여 전국에서 일어난 학생이
무릇 오만 사천 여명....
혹은 쇠사슬에 묶이어 철창아래 갇히었으며
또 혹은 피를 뿜고 쓰러졌으며
그 날 그들이 높이 들었던 정의의 깃발은
그대로 역사 위에 길이길이 타오르나니
어허 여기 흐르듯 고인 그들의 피와 눈물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여기에 서린 채 깃든
그들의 넓과 뜻은 저래의 갈 길을 밝히어 비추리로다.

- 광주 학생운동 기념탑 비문(광주 제일 고등학교 교정)-

기념식순

· 사회자 - 학생회장 ·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맹세

□ **목념** - 광주학생운동 당시의 청소년들과 오늘의 청소년들 중에 희생된 이들을 위해

□ **시 낭송**

청소년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뜻을 담고 그 날의 전통이 오늘에 이어지도록 학생들의 자작 시로 낭송하거나 기성시인들의 시를 낭송

□ **축사** - 각 학교 교장선생님

□ **학생의 날 기념극**(연극부 - 자체 준비)

청소년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즉흥극 형태로 준비할 수 있다. 혹은 광주학생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연극의 형태로 바꾸어 공연하여 그 날의 의미를 되살리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학생의 날을 되찾기위한 우리들의 주장**

청소년인권을 지켜나가는 한 방법으로 학생의 날 되찾기를 위한 청소년들의 뜻모으기로 학생대표가 학교현실에 맞추어 혹은 다짐들을 표현할 수 있다.

□ **축가** - 교내 합창부 혹은 중창단 - 학생의 날을 축하해요

□ **학생의 날 노래 제창**

각급 학교 학생회주최 행사마련 제안

- 결석친구들기(모금 등), 합창제, 학생의 날 기념 노래가사바꿔부르기 대회, 단축마라톤(학교주변), 자율복장의 날 등 학생회가 주최로 마련할 수 있는 행사들

학생의 날 수업하기

□ **학생들에게 예주는 이야기**

간추린 광주학생독립운동

□ **수업자료**

학생의 날 공동수업 방안

1. 취지와 목적

- (1)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수업을 진행하고 교사로서는 겸허하게 학생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간다.
- (2) 학생의 날 의미를 계승하여 학생들을 집단화, 주체화한다.
- (3) 학생의 날을 학생, 교사가 힘을 모아 부활시킨다.

2. 진행방안

(1) 학생의 날 소개 및 교사의 입장 예기

광주 학생운동의 의의와 교육주체로서의 학생집단에 대해서 예기하고 교사의 학급, 학생을 보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예기한다.

(2) 목념

일제하 학생운동 관련 또는 학생들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한 시를 사전에 준비하여 한 학생이 낭송하게 한다.

(3) 노래

분위기에 따라 하되 학생의 날 노래, 아침이슬, 선구자, 술아 푸르른 술아, 터 또는 더 대중적인 학생들이 잘 부르는 잘 아는 노래로 한다.

(4) 학생의 날을 맞이한 학생들의 입장발표

그 전 수업 시간에 광고하거나 또는 사전 준비케 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

(5) 주제를 잡아 토론, 3분 발표, 글쓰기, 촌극 등 학급상황에 맞는 수업을 진행한다.

3. 사전준비

- (1) 사전에 학생의 날을 기념한 수업을 하겠다고 광고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 (2) 사진이나 복사물을 준비하여 그날 돌려 볼 수도 있다. (광주학생운동, 그날 얘기할 토론과 관련한 내용)
- (3) 진행자나 몇몇 발표자를 미리 준비시킬 수도 있다.

4. 각종 주제 예시(글쓰기, 토론, 대화, 3분발표, 촌극...)

광주 학생운동과 학생자치활동 / 내가 바라는 선생님, 학교 / 교사~학생관계 내가 선생님이라면 / 학생자치와 우리의 현실 / 10년후의 학생과 학교 / 학생의 날을 시키자 / 학생문화, 학생들의 고통, 자살 / 학생과 공부 / 이 시대의 학생 / 일제잔재와 교육 / 광주학생운동 계승방안

5. 해보고 싶은 수업

(1) 전 수업시간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들과 온몸으로 부딪치며 깊이 만나고 싶다. 전 수업시간에 학생의 날을 소개하며, 광주학생운동과 현재의 학생들의 삶을 비교해서 얘기하면서 교사의 솔직한 반성을 덧붙인다. 그리고 다음 수업시간에는 기념 수업을 하고 싶다고 하며, 솔직한 학생들의 목소리, 주체적인 학생들의 목소리와 진실로 만나고 싶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교사-학생 관계와 학생이 바라는 교육에 관련하여 촌극, 장기자랑, 발표 등을 모듬별로 하기로 결정한다. (학생이 원한다면) 결정이 나면 모듬별 토론을 통해, 발표준비를 하도록 하고 전체 진행자를 준비한다.

(2) 본 수업시간(진행:학생)

가. 학생의 날과 교사의 입장 발표(여러분의 날)

나. 묵념과 시 낭송

다. 공동체 놀이(앞으로 손이, 저놀부 두손에 떡들고, 개똥벌레)

라. 모듬별 발표(노래, 촌극, 웅변, 논설, 재담, 글 발표)

마. 선물증정(뽕튀기 과자 1개씩)

□ 학생의 날 기념 공동 수업을 위한 읽기 자료

교사에겐 스승의 날, 학생에겐 학생의 날!

- 서울지부 학사부 -

1. 학생의 날을 스승의 날과 함께 양대 기념일로!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 전남 광주에서 있었던 항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1953년 10월 문교부령으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민족 독립과 학원 자주를 위한 일제시대 학생들의 피땀의 결정체인 학생의 날은 50~60년대 학생 교사들의 노력으로 4.19 혁명을 거치며 학교사회의 축제와 자랑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70년대 들어와서 학생의 날은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해온 학생과 교사(특히 호남권)들의 노력과 국민의 민주화 투쟁과 염원으로, 1984년 국회의 결정을 거쳐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민족 독립과 학원자주,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학생의 날에 대학생들은 기념식을 갖고 의미를 되새기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당국의 기피와 교사-학생의 무관심으로, 달력에 표시된 글자 이상의 의미를 띠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5일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라 정했다는 스승의 날이 그만큼 뿌리가 깊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반면 학생의 날은 오랜 단절속에서도 다시 회복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제 우리 교사들은 스승의 날에 선물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말고 학생의 날을 학생들에게 찾아줌으로써 학생의 날과 스승의 날을 학교의 양대 기념일로 만



들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조회 시간과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학생의 날을 맞이하고 기념합니다. 그것은 많은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스승의 날도 있고 너희들의 날인 학생의 날도 있다. 학생은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축하한다.' 이것이면 됩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이제껏 스승의 날과 함께 자기들의 날이 있었으면서도 몰랐다는데 대한 서운함과 함께, 낮은 수준에서나마 삶의 주체로서의 자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각성이 조금씩 일어나고 그것이 학생과 교사사회에 대물림되어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학생의 날은 스승의 날과 더불어 교육계의 양대 기념일로 세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학생의 날에 되돌아보는 교사의 역할

뱀 장수가 재담을 늘어놓으면서 사이사이 후렴처럼 되풀이하는 말에 "애들은 가라"란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이 판에 주체로 참가할 처지가 아니니 가라는 것입니다. 뱀 장수가 늘어놓는 재담이 음담패설류인 만큼 그럴 법한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학생들은 뱀 장수의 음담패설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건전한 관심, 학급-학교의 운영, 청소년 시절에 누릴 만한 독서생활, 정서함양을 위한 제반 활동, 가정에서의 생활에서 "애들은 가라"라는 말에 짓눌려 있습니다. 학생이, 애가 공부나 하기 무슨 사회 정치에 대한 얘기나 등등.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서 나가기 위한 모든 판에서 아직 애들이라는 이유로 우리 학생들은 쫓겨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강요되는 판은 입시경쟁판 뿐이고 비공식적으로 강요되는 판은 음란문화, 퇴폐적이고 왜식과 서구색에 찌든 문화판 뿐입니다.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발전은 억압당한 체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경쟁에서 오는 중압감을 음란 퇴폐문화의 소비자가 됨으로써 해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중고생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고생의 모습은 생존경쟁에 시달리면서 그 중압감을 음란퇴폐문화에 탐닉함으로써 해소하고 있는 오늘날 왜소화된 어른들의 축소판에 다름 아닙니다. 사회인으로서의 건강한 관심을 억압당한 체 생존경쟁에 시달리면서 그 중압감을 음란 퇴폐문화 탐닉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어른들의 왜곡된 모습이 "애들은... 하면 안된다"는 말로 청소년들에게도 강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요구는 왜곡되긴 했지만 애정의 발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무사히 편안히 살기 바라는 맹목적인 애정입니다. 그러나

애정과 염려가 왜곡되어 맹목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탕에는 강한 피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외세의 끊임없는 간섭 속에서 민족의 자주와 사회의 평등, 자유를 향한 노력들은 여지없이 짓밟혔고 지금도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경험속에서 바른 말하면 다친다는 피해의식이 형성되고 이 피해의식이 무사안일하기를 바라는 맹목적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불행한 역사와 그로 인해 형성된 엄청난 피해의식을 감안하더라도 어른들이 학생들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요구로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현실추구적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어른 노릇을 톡톡히 해낸 것은 오늘날 중고생 나이의 청소년들이었던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한말의 의병이나 일제하 독립군의 압도적인 연령층이 15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청소년층이었으며 3·1운동, 6·10 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의 주된 동력이 중학생(현재의 중고생)이었고 4·19, 6·3한일협정 반대, 광주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은 역사에 대해 책임지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외세와 지배 세력의 2중 3중의 압박 속에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장년층이 쉽게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이기주의로 주저앉은 데 비해 정의감이 강하고 생활에 부담이 없는 청소년들은 쉽게 2중 3중의 압박을 뚫고 역사에 대해 책임지는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청소년들이 한 역할을 살펴보면 "애들은...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역사와 사회에 대해 어린애로 퇴행한 어른들이 역사와 사회에 대해 어른 노릇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잘라 버리고 어린애로 주저앉히는 그리하여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진취적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기 쉽습니다.

외세의 간섭이 심한 나라일수록 학생, 청소년의 역할은 크고 빛났습니다. 국내 지배세력의 중압에 외세의 중압까지 겹쳐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해 내는 데는 순수함과 높은 정의감, 헌신성이 크게 필요했고 그 헌신성이 학생, 청소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애들은 가라"는 청소년을 비주체화하는 불구의 사회인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는 부쩍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우리 사회와 역사의 주인으로서 튼튼히 서 나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사회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주로 짓던 과거의 사회에서는 15세 가까이만 되어도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숙련 기술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고도의 기능을 익히기까지 많은 세월이 필요해졌고 25~26세까지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때문에 과거에는 15세만 되어도 어른 대접을 했는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20여세가 되어야지만 어른 대접을 하는 변화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 노동력으로서의 완성 정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주적인 사회인으로 서는 것과 고급 노동력으로 완성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동일시하면 예컨대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미완성의 노동력이고 평생 애들이니까 싸게 마구 부려도 된다는 사장님의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흥범도 장군이라든지 일제말 암흑기에 일제에 항거한 농민이라든지, 전태일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사회와 역사를 책임지는 진정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적인 사회인, 진정한 어른, 주인, 주체로 서는 것은 결코 나이나 학력에 따르는 것 아닙니다.

외세의 간섭이 심한 우리 사회의 특수성,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이 대접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이 우리 학교와 사회의 올바른 주인으로서 나가는 노력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남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참된 주인으로서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주춧돌이며 대들보입니다. 청소년들의 사명을 자각하여 자신이 생활하는 학교, 가정에서 진정한 주인으로서 나가려는 작은 노력들을 성실히 해 나가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광주항일 학생운동"

□ 개요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났던 대표적인 민족운동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규모나 영향 그리고 역사적 의의에서 3·1운동과 나란히 하는 사건이었다. 또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단순히 광주와 나주를 통학하던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3·1운동 이후의 기만적인 소위 문화정책과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대공황, 1920년대 이후 노동·농민·학생운동의 성장 등 국내외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일어난 것이었다.

1929년 11월 3일은 日王 明治의 탄생기념일인 明治節이었으나, 또한 우리에게 음력 10월 3일 국조 단군이 개국하신 날이었다. 우리의 開天節에 일제의 神祀에 참배를 강요당했던 광주 고보생들의 비통한 심경에 가해졌던 일본 학생들의 무례한 도전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에서의 항일시위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지역에 그치지 않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시위나 동맹휴학 등의 형태로 계속되어 전국적으로 194개 학교가 참가하였고 참가 학생 수는 54,000 여 명으로 당시 전체 학생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했던 것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희생당한 학생 수는 퇴학 582명, 무기정학 2,330명, 검거 당한 사람이 1,462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였다.

또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파급되어 만주의 간도와 吉林省, 중국의 上海, 北京, 그리고 일본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격려하는 집회와 만세시위가 있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학생들의 항일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新幹會·權友會·朝鮮青年同盟 등 당시의 주요 사회단체와 解進會·讀書會中央本部·朝鮮學生前衛同盟 등 비밀결사의 지원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일제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은 끊임없이 이어져 1940년대 전쟁에 따른 강압적 징병과 공출에 대한 저항운동은 드디어 1943년 5월 광주고보 동맹휴학을 계기로 제2차 학생독립운동이 발발하였다. 이렇듯 정의감과 애국심이 강렬했던 학생들은 일제의 식민통치 아래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 했고 민족적 차별을 철

폐하기 위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자랑스러운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 제 1 장 역사적 배경

제1절 사회경제적 배경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와 나주사이를 통학하던 한·일 학생간의 사소한 충돌에서 비롯되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그에 대항하는 민족운동의 성장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1920년이라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조선 병합 이후 일제는 토지조합사업을 통해 식민지 수탈구조와 안정적인 재정수입원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헌병경찰제도를 바탕으로 무단정치를 시행하여 폭압적으로 한국민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방식은 곧바로 한국민의 거족적인 저항에 부딪혀 3·1운동을 초래하였으며, 3·1운동은 일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 통치방식을 문화정치로 바꾸게 하였다. 문화정치는 겉으로 유희적이고 세련된 모습을 띄고 있어 지배방식에서는 한 단계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무단정치와 다를 바가 없는 기만적인 것이었다. 일제는 1920년 회사령을 폐지하고 산미증식계획을 시행하여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경제공황의 위기를 타개하면서 동시에 조선의 산업구조를 식민지적 산업구조로 재편해 나갔다.

특히 1920년부터 34년까지 시행된 산미증식계획은 소위 '쌀 소동'으로 인한 일본 본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은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도시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동시에 농촌의 대량이농현상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쌀 수요가 급증하면서 식량수급과정이 일시적으로 왜곡되어 1918년 일본 각지에서 도시노동자와 빈민들이 쌀을 요구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일제는 단기적으로는 쌀 소동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자본주의 발전에 절대 필요한 저임금 유지를 위한 식량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시행했던 것이다. 산미증식계획으로 자작농들은 토지를 몰수당하거나 헐값에 팔아 넘겨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그리하여 춘궁기에 먹을 쌀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연명해야만 하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원시적인 생활을 하며 목숨을 이어가는 화전민과 만주·연해주 등지로 떠나는 유랑민이 급증하였다. 이렇듯 일제의 경제침략과 수탈 속에 조선의 농촌경제는 점점 피폐해 갔다. 당시 광주와 나주를 통학하던 학생들은 이러한 식민지 사회의 모순을 자각하며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을 키워 나갔으며 이것이 통학 열차 안에서의 일본인 학생과의 충돌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제 2 절 정치·사상적 배경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3·1운동을 통해 한 국민의 거족적인 저항에 부딪힌 일본제국주의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폭압적인 무단정치 대신 유희적인 문화정치를 시행하였다. 1919년 9월 새로 부임한 사이토오 미노루 총독의 시정방침에 잘 나타나 있는 문화정치의 주요한 내용은, 총독에 무관뿐만 아니라 문관도 임명할 수 있게 하고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며 일반관리와 교원들이 금폐 제복을 입고 칼을 차는 것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관리 임용과 대우를 개선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조사연수에 착수하며 조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는 민족운동세력을 분열시키고 더욱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기만적인 조치였다. 실제로 해방될 때까지 총독에 문관은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으며 헌병경찰제도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경찰관서와 경찰관은 각각 3배 이상 늘어나고 조선 주둔 일본군도 5,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증강되는 등 무력에 의한 지배를 완화된 것이 아니었다. 문화정치는 무단정치와 그 지배의 본질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었으며 일본제국주의가 국내외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겉옷을 바꿔 입은 데에 불과하였다.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은 일제의 기만적인 문화정치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성장을 이루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나주에서는 1927년 9월 신간회 나주지회가 창립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나주청년동맹이 결성되었다. 학생들의 대시위가 처음 시작되었던 광주에서는 1927년 10월 신간회 광주지회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광주청년동맹이 결성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민족운동을 이끌어 갔다. 특히 광주청년동맹은 전남청년연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광주학생독립운동에서 활약했던 인물들 가운데 상당수가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발발했던 당시 전남청년연맹과 각 지역의 청년동맹, 신간회 지회에 참여하거나 연관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전남청년연맹회에도 학교를 졸업한 성진회 출신들이 많이 참여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신간회·근우회·조선청년총동맹 등과 연계를 맺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데서 기인했던 것이다.

제 3 절 학생운동의 성장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전국 194개교에서 54,0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거족적인 항일 운동으로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일제시대 3대 민족운동의 하나로 일컬어져 왔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이렇게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의 폭압적인 지배와 왜곡된 식민지 교육을 극복하기 위

해 노력했던 학생운동의 성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3·1운동에서 표출되었던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하는 방법의 하나로 조선의 교육제도를 일본의 교육제도를 기준으로 동등하게 한다는 준거주의(準據主義)를 표방하며 조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4년 이내에 전국의 모든 면(面)에 최소한 1개의 보통학교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그나마 혜택은 주로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 학생에게 주어졌다. 고등교육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조선인 학생들은 항상 입학난을 겪어야 했으며 교육 내용 역시 실업교육과 일본어·일본 역사 교육이 주가 되어 충실한 일본 황국신민(皇國臣民)을 양성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비록 교단에서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위협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없어졌으나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은 항상 권위주의적으로 학생들 위에 군림하였으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자치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또한 이들은 조선인 학생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였으며 비교육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식민지 차별교육에 대한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학생들이 민감하게 느끼고 불만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욱이 자신들을 둘러싼 식민지 사회의 사회경제적 피폐상은 이들로 하여금 단순히 교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의 모순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교육적 차별과 식민 지배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나아가 민족의 해방을 위해 학생단체를 조직하거나 동맹휴학 등을 감행하면서 학생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학생층은 조선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지식층들이었으며 노동자·농민 등 다른 사회계층보다 조직화되기 쉬웠기 때문에 항상 민족운동의 전면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므로 일제시대 3대 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모두 학생층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 제 2 장 광주학생운동의 발발

제1 절 광주지역의 비밀결사와 동맹휴학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였던 광주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 못지 않게 학생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곳이었다. 성진회와 독서회 중앙부는 이 지역의 학생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학생비밀결사였다. 성진회는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인 왕재일·장재성과 광주농업보통학교 학생인 박인생 등이 제안하여 1926년 11월 3일 취규창의 하숙집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왕재일·장재성·취규창·안종익·김광용·김창주·임주홍·정우채·채영석과 광주농업학교 박인생·정남균·정동수·정종석·김한필·문승수 등 모두 15명의 학생이 모여 결성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차별교육에 저항하는 강한 민족의식

을 지니고 있으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사회주위 사상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다. 모임의 명칭은 왕재일이 제안한 '깨달아 나아가자'는 뜻의 성진회(醒進會)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강령을 채택하였다.

1. 일제의 굴레에서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자.
2.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은 절대 반대한다.
3.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요구한다.

독서회 중앙부는 1929년 6월 중순 동경 중앙대학 예과에 유학했던 장재성이 학업을 중단하고 광주에 돌아와 광주고보의 김상환·김보섭·윤창하, 광주사범의 송동식·강달모, 광주농교의 조길룡·김순복 등과 광주 양림리(지금의 양림동)에 있는 김기권의 집에 모여 결성하였다. 장재성은 광주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한 뒤에도 방학 때마다 돌아와 성진회 회원들에게 사회과학을 지도하였으며, 1928년 광주고보 망휴 때에는 '동경 유학생 모교 분규사건 대책 강구회' 특파원 자격으로 귀국해 망휴 투쟁 깊숙이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런 그가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와 각 학교의 핵심회원들에게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활동들을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독서회 중앙부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1920년대 민족운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성진회와 독서중앙회가 주도하는 동맹휴학을 통한 투쟁역량을 바탕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제 2 절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폭발

1929년에 들어와도 학생들의 투쟁은 그치지 않았다. 일제의 탄압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와 나주를 통학하던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사이의 충돌을 계기로 발발하였다. 당시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은 일제가 호남지역의 농산물을 쉽게 약탈해 가기 위해서 철도노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 1929년 당시 광주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였는데 광주로 통학하던 학생 수가 수백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전체 중학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주·송정리 방면은 일본인 학생수가 많아 100여 명에 달하였다. 이 지역이 교통의 요지인 동시에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일본인들이 진출해 있었으며 토지수탈을 위한 동양척식회사의 이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하층에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와서는 총독부의 지원과 수탈을 통해 1인당 평균 1만 평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하는 등 재산을 축적할 수 있어 자녀들은 광주에 있는 학교에 통학시켰다. 일제의 수탈과 멸시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자랐던 한국인 학생들과 일제 식민권력의 우산 아래 오만 방자하기 이를 데 없었던 일본인 학생 사이에는 항시 갈등과 마찰의 요인이 있었으며 이것이 쌓여 오다 결국 폭발해 버렸던 것이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를 출발한 통학열차가 오후 5시 30분 나주역에 도착하였다. 통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출구로 나오는데, 광주중학교에 다니는 일본인 학생 후쿠다·스에요시·다나카 등이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인 박기옥·암성금자·이광춘의 땀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하였다. 이들은 기차 안에서부터 이 여학생들을 희롱했었는데 기차에서 내리고 나서도 계속 못살게 굴었던 것이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박기옥의 사촌동생 박준채는 분노하여 역을 나오자마자 후쿠다를 불러 세우고 따졌다.

"후쿠다 너는 명색이 중학생인 녀석이 야비하게 여학생을 희롱해"
"뭐라고? '센징'인 주제에 뭐라고 까불어"

'센징'이란 말이 후쿠다의 입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박준채의 주먹은 그의 얼굴로 날아갔다. 센징은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모욕적으로 부를 때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억눌렀던 민족감정이 폭발했던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난투극을 벌이고 급기야는 역광장에 있던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의 패싸움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한국인 학생은 30여 명으로 50여 명의 일본인 학생에 비해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사기에서는 일본인 학생이 울분과 악에 받쳐 있는 한국인 학생에 비할 바가 못되어 부상자는 일본인 학생이 더 많았다.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나주 역전 파출소 순사 모리다가 달려와 이유를 묻지도 않고 박준채의 따귀를 때리면서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같이 있던 광주고보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여 사태가 심각해지자 모리다는 주춤하여 학생들을 해산시켰다. 이날은 일단 이렇게 끝났다.

이튿날인 10월 31일 아침 광주로 가는 통학열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때를 지어 물러와 박준채를 둘러싸고 시비를 걸었다. 서로 욕신각신하고 있는 사이 옆 차에 타고 있던 광주고보 학생과 광주농고 학생들이 물러와 대치하였으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5시 광주를 떠나 송정리로 가던 통학열차 안에서 광주고보생과 광주중학생 사이에 결국 패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일본인 차장이 달려와 싸우던 학생들의 통학승차권을 압수하고 박준채와 후쿠다, 그리고 2~3명의 한국인 학생을 2등칸에 있는 차장실로 끌고 갔다. 2등칸에 있었던 광주일보 일본인 기자와 일본인 승객들은 '센징인 주제에 건방지다', '센징 학생들이 잘못했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일방적으로 일본인 학생들을 두둔하여 한국인 학생들의 반일감정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11월 1일 박준채와 후쿠다 등은 전날에 압수 당한 통학승차권을 찾아 등교하였다. 후쿠다는 전날의 상황을 자신에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학교에 보고하였고 광주중학교에서는 이를 광주고보에 알렸다. 그리하여 박준채는 방과후에 와다나베 교감에게 불려가, 기차통학생들의 충돌은 민족감정의 충돌이며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신중히 사태를 수습하는데 힘쓰라는 설교를 듣기도 하였

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학교 당국은 통학생 감독을 목적으로 교사를 광주역에 파견하여 같이 기차를 타도록 하였다. 이날 오후 4시 30분 통학열차가 광주역을 출발하려고 할 때, 광주중학교 학생 30여 명이 야구방망이와 죽창·죽검 등을 들고 유도 교사 이다의 인솔 아래 전날의 일을 복수하겠다고 물러왔다. 이를 본 20여 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기차에서 뛰어내려 개찰구의 목책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여 충돌 직전까지 갔다. 일본인 학생 가운데는 단도를 빼어 들고 시퍼런 칼날을 번득이며 한국인 학생의 기를 꺾어 보려하였으나 한국인 학생들도 싸울 테면 싸워 보자며 기세 등등하였다. 이 사실은 곧바로 학교에 알려졌고 두 학교 선생들과 경찰까지 현장에 달려와 제지함으로써 가까스로 수습되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중학교 선생들은 전날 광주고보 학생 가운데 일본인 학생을 때린 자가 있다면서 수색하는 등 오히려 일본인 학생들을 선동하기도 하였다. 양쪽이 동시에 물러나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 정리되었지만 광주고보 학생들은 일본인 학생들이 모두 물러간 뒤에도 역전광장에 집결하여 있다가 그 동안의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두 학교로 돌아가 강당에 집결하였다. 통학생 대표가 사건 경위를 보고하여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일단 모임을 해산하고 귀가하였다. 선생들도 다시 충돌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열차에 같이 승차하여 학생들을 데려다 주고 시내를 순회하면서 감시하였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광주 시내의 분위기는 살벌해져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모두 몇 명씩 때를 지어 다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한·일 학생 사이에 싸움이 붙어 한국인 학생이 많이 다쳤으니, 칼에 맞아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으니 하는 소문이 퍼져 긴장을 더해 갔다. 그러한 가운데 11월 2일은 별 사고 없이 넘어가고 역사적인 11월 3일이 왔다.

제 3 절 광주에서의 제1차 시위운동

11월 3일은 일제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명치절(明治節)이었다. 명치절은 일본 근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일황 명치의 탄생기념일로 일본인들에게는 손꼽히는 경축일이었다. 그러므로 일제는 이 날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기념식을 치르도록 하였다. 또한 이 날은 일제가 식민지 경제 수탈의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전남산 견육만석 돌파 경축대회(全南産肉六萬石突破慶祝人會)가 지금의 광주공원 자리에 있는 광주신사(神社)앞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시내 곳곳에는 현수막과 애드벌론·일장기가 휘날리고 전남 각지에서 관계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일본인들에게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다.

한편 이 날은 음력 10월 3일로 우리 나라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개천절이었다. 자신의 명절날에 남의 나라 명절과 경축행사를 치루어야 하는 조선인들에게 이

날은 더욱 서글픈 날 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민족의 비참한 현실에 학생들은 치미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다. 마침 이 날은 성진회 창립 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였다. 광주고보 학생들은 명치절 기념식에서 일본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를 때 침묵으로 저항하였다. 학생들의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학교 당국은 평소 같으면 단체로 했을 신사참배를 개별의사에 맡기고 귀가하도록 하였다. 물론 학생들은 신사참배도 거부하였다. 광주고보와 광주중학교 선생과 직원들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행동을 감시하였으나 학생들은 시내 도처에서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광주일보사로 몰려갔다. 당시 일본인이 경영하던 광주일보는 일제의 기관지나 다름없었으며 11월 1일 한·일학생 사이의 충돌사건도 한국인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등 편파적으로 보도하여 학생들이 이를 규탄하고 응징하기 위해서였다. 학생들은 기사의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그 와중에서 누군가가 운전기에 모래를 뿌렸다. 이와 비슷한 시각에 신사참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광주중학교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고보 최쌍현(崔雙鉉)에게 시비를 걸어 단도로 얼굴을 찌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철물점에 단도가 동이 날 정도로 일본인 학생들이 칼을 사 갔으며 그 칼로 한국인 학생들을 해치려 한다는 풍문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고보 학생을 단도로 찔렀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오전 11시경 최쌍현을 찔렀던 일본인 학생들과 수명의 광주고보 학생들이 수기옥정(須奇屋町) 우편국 앞에서 부딪쳐 시비가 벌어졌으며, 이 소식을 들은 황남옥, 최상을 등이 가세하여 사이트오와 마스나가를 구타하였다. 수세에 몰린 일본인 학생들은 광주역(지금의 소방서)쪽으로 도주하였으며 광주고보 학생들은 이들을 추격하였다.

같은 시각에 수십명의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이다(伊田)라는 유도 교사의 인솔 아래 야구방망이와 죽검 등으로 무장하고 광주고보생 타도를 외치며 광주역으로 쇄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도주하던 일본인 학생들과 합류하였는데 아마도 이날 광주고보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하기로 사전에 계획을 세웠던 듯하다. 광주역에는 한국인 통학생 수십 명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명치절 행사에 동원되었던 학생들이었다. 비무장으로 있다가 위기에 직면한 학생들은 역구내 한쪽으로 모여 방어태세를 갖추는 한편 광주고보 기숙사에 이 소식을 알렸다. 급보에 접한 기숙사 학생들은 몽둥이·야구방망이와 학교 창고에서 꺼낸 농기구 등으로 무장하고 합성을 지르며 광주역으로 뛰어갔으며 광주농고 백여 명의 학생들이 달려왔다. 이들은 가지고 온 야구방망이와 농기구 등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서로 난투극을 전개하여 광주역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양쪽의 학생 수는 각각 200여 명으로 비슷하였으나 사기에서는 한국인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참았던 분노와 쌓였던 울분이 일시에 폭발하여 결사적으로 싸웠기 때문이다. 사태가 벌어지자 주변에 몰려든 수천의 군중들도 큰 소리로 "왜놈을 죽여라"하며 성원하자 학생들의 사기는 더욱 충천하였다.

또한 투석전과 육박전이 벌어지는 동안 광주여고보와 수피아여고 학생들은 돌을 치마에 담아 날라다 주었고 붕대와 구급약품을 가져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물을 가져다주기도 하였으며, 반면 일본인 여학교인 대화(人和)고등여학교 학생들은 일본인 학생들을 도왔다. 광주역 대합실은 일본인 학생의, 그 건너편 남철자동차회사 대합실은 한국인 학생의 야전병원이 되었다. 마침내 일본인 학생들이 밀리기 시작하였고 한국인 학생들은 더욱 기세에 올라 담양가도까지 일본인 학생들을 추격하였으며 내친 김에 광주중학교까지 밀어붙일 생각이었다.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중학교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성저리 십자로 부근의 동문 다리까지 밀려 대치하고 있었을 때는 그 부근의 관동여관 주인이 학생들에게 장작더미를 담 너머로 던져 주며 왜놈들을 쳐부수라고 돕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인 학생들이 장작 한 개씩을 들고 몰아붙이려고 할 때 경찰이 들이닥쳤다.

광주역 광장에서 한·일 학생 사이에 집단충돌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광주경찰서에서는 기마 경찰대와 소방대까지 동원시켰던 것이다. 경찰은 학생들의 진로를 차단하고 소방대는 학생들의 싸움을 저지시킨다는 구실 아래 추운 겨울에 소방 호스로 얼음물을 한국인 학생들에게만 뿌려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더욱이 두 학교의 교사와 직원들도 현장으로 달려와 경찰과 함께 한국인 학생들이 동문 다리를 건너 광주중학교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해산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서로 교섭을 벌여 일본인 학생들이 먼저 퇴각하였다. 한국인 학생들은 물러나는 일본인 학생들에게 야유를 보내며 계속 밀어붙일 생각이었으나 졸업생인 장재성이 나타나 학생들에게 "오늘 광주역에서 적과 싸운 것은 용감한 조선인의 기상이었고 또한 대승리였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말을 하며 싸움을 중지하고 학교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여 모두 광주고보로 돌아왔다. 이때 시간은 정오가 조금 지났으며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한 뒤였다.

이날 오전의 충돌로 한국인 학생은 최쌍현·장석진·김의원·임한길·최상봉·이인규·고광신·구용우·정상열 등 10여 명이 부상하였는데, 이에 비해 일본인 학생은 2배가 넘는 20여명이 부상하였다. 한편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동안 흥학관에서는 장재성과 장석천·나승규·국채진 등이 긴급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행에 옮길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1. 우리의 투쟁 대상은 광주중학생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이니 투쟁 방향을 일제로 돌릴 것.
2. 광주중학생에 대한 적개심과 투쟁을 일제에 대한 증오와 독립투쟁으로 바꿀 것.
3. 광주중학생과 대치 중인 광주고보생을 해산시키지 말고 광주고보로 집합시켜 적개심에 불타는 학생들을 식민지 강압정책 반대 시위운동으로 돌릴 것.
4. 장재성이 시위운동을 직접 지도할 것.
5. 우리는 앞으로 다른 동지들과 연락하여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계획할 것.

광주고보로 돌아온 학생들은 강당에 모여 5학년 을조 급장인 노병주의 사회로 사건의 경위와 사후대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최쌍현·정상열 등 부상 학생들이 차례로 등단하여 그날 자신들이 겪은 충돌사건의 경위를 보고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후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때 나주에서 열차 통학을 하는 오쾌일이 연단으로 올라가 "오늘의 대승리를 신천지의 동포들에게 알리고 일제 타도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시위를 전개하자"고 제의하자 강당에 모인 학생들은 모두 환호하며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 또한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교를 타도해 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광주역에서 철수할 때 함께 온 광주농고 5학년이며 당시 광주~나주간 기차 통학단장이었던 최태주가 "광주고보생만이 조선학생이 아니오 우리 광주농고생도 한 피를 받은 동포이니 생사를 같이하여 시위 대열에 참가하겠다."고 제의하여 참석한 모두의 호응을 받았다. 당시 시라이 교장은 출장을 가서 부재중이었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시위를하기로 결정한 학생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동시에 장재성은 와타나베 교감에게 위장 제의를 하였다. 즉 그날 오전의 불상사는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계획적으로 도발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쪽에 있다고 주장하고, 학생들을 그대로 나누어 귀가시키면 도중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르니 전체 학생이 함께 나가 몇 개 지점에서 방면별로 귀가시키고, 마지막으로 열차통학생은 교사들이 광주역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교감은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인솔할 것을 지시하였다. 학교 당국의 공식적인 허락이 떨어지자 300여 명의 학생들은 8명씩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출발하였으며 순식간에 농기구실과 운동기구실의 자물쇠를 부수고 팽이자루·삽자루·목검·장작·몽둥이 등으로 무장하였다. 학생들이 시위대로 돌변하자 당황한 교감과 교사들은 학생들을 만류하였으나 이미 역부족이었다. 그 때가 오후 2시경이었다. 시위 대열은 상급생들이 앞장서고 하급생들이 그 뒤를 따랐으며 김향남·김보섭·김상환·강운석·김무삼 등 기골이 장대한 학생들이 선두에서 이끌었다. 교문밖에는 이미 최태주의 연락을 받은 광주농고 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박수로 환호하면서 시위 대열에 합류하여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교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위 대열 앞에서 따라가고만 있었다. 교문을 나선 시위대는 행진가를 부르며 시내로 나아갔다.

신천지에 휘날리는 우리 동포야
길이길이 기다리던 오늘이 왔구나
무등산에서 단련한 기술로
용감히 적군을 물리치세

시위 행렬이 지날 때 시민들은 각목이나 장작을 가져다주며 환호하였고, 어떤 사람은 팔려고 사다 놓은 벚나무 지팡이 10여 개를 던져주기도 하였다. 광주고보 학생을 상대로 호떡장사를 하던 아저씨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떡을 바꾸니에 가

득 담아 가지고 와 거저 나누어주었으며 감 장사는 감을, 떡 장사는 떡을 나누어주며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말하자면 광주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학생들의 의로운 거사를 성원했던 것이다. 시위대는 시가를 누비며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으며 '식민지 노예교육을 철폐하라', '일본인 학교를 폐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와 응원가를 목이 터져라 부르며 행진을 계속하였다. 연도의 시민들도 시위대열에 합세하거나 박수로 격려하며 일제 타도를 외쳤으며 광주여고보 학생들도 손에 손에 물과 호떡·빵을 들고 나와 학생들을 도왔다.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시위는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대시위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시위대가 광주중학교를 습격하기 위해 담양가도에 이르렀을 때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다. 경찰은 소방대와 재향군인들까지 동원하여 광주중학교로 통하는 길을 가로막고 시위대를 저지하였다. 경찰과 대치하며 실랑이를 벌였던 시위대가 동문 다리에서 방향을 바꾸어 본정(지금의 충장로)쪽으로 향하자 놀란 일본상인들은 부랴부랴 문을 닫아걸었고 집에 질린 일본인들은 숨을 곳을 찾기에 바빴다. 20여 명의 경찰들이 본정 가까이 상점 앞에서 시위대를 저지하였으나 막지 못하였으며 우체국 앞에서도 시위대는 저지선을 뚫고 계속 전진하였다.

도청에 이르자 100여 명의 광주사범학교 학생들이 합류하였다. 그때 광주사범 학생들은 시내로 진출하려고 하고 학교 당국은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며 밀고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시위대가 도착하자 더욱 사기가 올라 담을 뛰어넘고 교문을 무너뜨리며 합세하였던 것이다. 1천여 명이 넘는 시위대는 광주중학교를 습격하기 위해 도립병원(지금의 전남대학병원)쪽으로 향하였다. 도립병원 앞에는 한국인 상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마실 물과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였다. 도립병원 앞 광장에는 광주경찰서 고등계 주임 나베지마가 지휘하는 100여 명의 경찰대가 진을 치고 시위대를 가로막아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들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등에 백묵으로 동그라미를 쳐 댔는데 뒤에 검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경찰은 계속 학생들에게 해산을 종용하고 들고 있는 야구방망이와 장작·각목·농기구 등을 버릴 것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이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시퍼런 칼을 빼어들고 불응하면 팔을 잘라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학생들은 시위를 통해 조선의 독립과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라는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할만큼 했으므로 잔인한 왜경들에게 쓸 데 없이 희생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장작과 각목 등을 던져 버렸다. 경찰은 다시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학생들은 듣지 않고 양림리로 향하였다. 경찰도 따라 왔으나 개의치 않고 광주천변을 따라 내려가다 부동교를 건넜다. 이 때 함께 시위에 참여하였던 광주사범과 광주여고보 학생들은 해산하였고 광주고보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왔다. 그 때 시간이 오후 5시로 3시간 동안 광주시내를 일주하며 시위를 한 것이다.

당시 신문은 시위 행렬에 참여한 사람이 3만 명에 이르렀으며 전시상태를 방불케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시위 대열이 시내를 한바퀴 도는 동안 일본인들은 자취

를 감추었고 멋모르고 거리에 나와 있던 일본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다. 잠시나마 조선인들이 주인자리를 되찾았던 것이다. 이날 박상기·최상을 등 30여 명은 광주역에서 경찰인 모루라·나카자와 등과 광주역원인 소도야마를 구타하였으며 광주중학교 학생 1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소 시장 앞에서는 경찰인 뉴다에게 집단 구타를 가하기도 하였다.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강당에 모이자 와타나베 교감은 "오늘의 사태를 논하기 전에 이처럼 고조된 분위기에서는 수업을 해 보았자 효과가 없을 것이니 흥분을 가라앉혀 평온을 되찾을 때 공부하기로 하고 3일간 휴교한다. 사고 없이 귀가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교사들과 함께 퇴장하였다. 상황은 이미 학교 차원에서 떠나 버린 것이다. 학생들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김항남·오쾌일·정명섭 등이 차례로 등단하여 발언하며 부상자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각 방면마다 대표를 선정하여 비상시 연락에 대비할 것을 결정하고 해산하였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광주 시내가 집인 학생들은 각 방면별로 집단을 이루어 집으로 돌아갔으며 기타 통학생은 기숙사생과 학교 주변에 사는 학생들이 역까지 같이 가 주었다. 이날 오후 7시경부터는 경찰이 전도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주동자들에 대한 검거를 시작하였으며 다음날인 11월 4일에 광주고보와 광주중학교에 3일간 휴교령을 내렸다. 시위가 일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11월 6일에 이미 당시 신문은 11월 3일의 시위를 10년 전 3·1운동이 있는 이후 처음 보는 큰 사건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이날의 대규모 시위가 어떻게 보여졌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여론이 비등해지자 총독부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도를 금지시키기까지 하였다. 이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해방과 식민지 노예교육·민족동화교육의 철폐를 위한 학생들의 저항은 맹휴투쟁에서 한 단계 진전하여 집단적인 가두 투쟁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제 4 절 광주에서의 제2차 시위운동

휴교는 9일까지 다시 3일간 연장되었다. 광주 시내는 요소 요소마다 무장경찰이 배치되어 마치 계엄령을 방불케 하였으며 한국인 학생들이 사오 명만 모여 있어도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 일반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더욱이 사건 다음날 광주와 나주·영산포 등지에 살고 있던 일본인 학부형들이 도지사와 경찰부장·학무과장 등 관계 요로에 진정하여 보복적인 강경책을 요구하는 한편 불안하여 살 수가 없으니 군대를 주둔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여 일제는 더욱 강경하게 나왔다. 그리하여 4일 오후 5시부터 전도에 걸쳐 검거선봉이 불어 11일까지 70여 명의 한국인 학생을 검거하여 60여 명을 구속, 검사국으로 송치하였다. 심지어는 최쌍현·김의원·장석진 등 중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연행해 갔다.

반면 일본인 학생은 겨우 7명을 구속하고 그나마 얼마 되지 않아 석방해 버렸다. 또한 일본인 부상 학생들은 당국이 즉시 독립광주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반면

한국인 부상 학생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부상정도가 심한 학생 9명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인병원인 태양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게다가 독립의원 원장은 광주경찰서 사법주임과 같이 태양병원에 돌연히 나타나 학생들의 부상 부위를 보고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아 학부형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편파적인 태도에 분개하였다. 이에 대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한국인 언론들도 연일 일제의 탄압과 불공평한 처사를 비난하였지만 일제는 사건을 단순한 내선학생간의 충돌사건으로 평가절하하며 강력히 탄압하여 조기에 수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에 의해 점화된 불길은 더욱 활활 타올랐다. 광주에서의 대시위는 발발하자 마다 전국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켜 신간회와 당시 각종 사회단체와 청년단체들이 즉각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며 사태를 예의 주시하였다. 11월 7일 조선청년총동맹의 소속단체로 서울지역 대표단체였던 중앙청년동맹에서는 조사위원으로 부건(大健)을,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는 권유근·박일 등을 광주에 파견하여 광주청년동맹의 장석천·국채진·강영석 등과 만나 사건의 진상을 듣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협의하였다.

같은 날 조선학생회에서는 중앙집행위원 이한성을 광주에 파견하였다. 또한 신간회에서는 11월 9일 중앙집행위원장 허헌과 서기장 황상규 회계 김병로 등이 내려와 광주고보와 광주중학교 교장으로부터 진상을 듣고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사건의 불공평한 처리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학생들도 광주지역에 국한하는 단순한 시위에 그치지 않고 이 기회에 한 차원 높은 보다 발전된 형태의 전국적인 항일운동을 민족운동단체와 연계를 가지면서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갔다. 제1차 시위운동 직후인 11월 4·5일 경 장재성은 신간회 광주지회와 광주청년동맹 등 광주사회·청년단체 간부인 장석천·강석원·박오봉·국채진·임종근 등과 만나 보다 강력하고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과 전국적인 학생시위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나아가 앞으로의 투쟁은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시내 금정에 학생투쟁지도본부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하였다.

- 1) 광주 및 전조선 학생의 지도 : 장석천
- 2) 광주 조선인 학생의 지도 : 장재성
- 3) 전남 도내 지방학생의 지도 : 국채진
- 4) 직공 및 노동단체의 지도 : 박오봉
- 5) 전남 도내 공립보통학교 교사와의 연락 : 임종근
- 6) 외래동지와의 연락 : 강석원
- 7) 운동자금의 조달 : 나송규

아울러 11월 7일 서울에서 내려온 부건·권유근 등과 광주에서의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장재성은 각 학교 독서회의 조직을 점검하고 11월 10일 박기석의 집에서 광주고보의 오쾌일·이영범, 광

주농업학교 김남철·정육·조길룡, 광주사범학교 이신형·황상남 등 각 학교 대표들과 만나 11월 11일 수업시작을 계기로 세 학교가 일제히 꺾기하여 격문을 뿌리고 시위를 감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 일제의 주목을 받은 11일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날인 12일을 거사날로 잡는 것이 일반인의 호응도 기대할 수 있고 파급 효과도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해 12일에 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김안진의 집에서 광주고보의 거사를 촉발하는 첫 발언을 김항남에게 부탁하고 12일 오전 9시 반을 기하여 행동 단계에 돌입할 것과 광주 시내의 모든 중등학교가 꺾기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튿날인 11일 장재성 「조선민중이여 꺾기하라」, 「학생대중이여 꺾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용감히 싸워라 학생대중이여, 우리의 슬로건 아래 꺾기하라, 우리의 승리는 오직 우리들의 단결과 희생적 투쟁에 있다」, 「용감한 학생대중이여, 최후까지 우리의 슬로건을 지지하라, 그리고 꺾기하라, 전사들이여 힘차게 싸워라, 힘있는 데까지 싸워라」는 제목의 4종의 격문을 작성하고 인쇄를 오쾌일에게 맡겼다. 오쾌일은 소녀회 중심인물인 장매성이 흥학관에서 가져다준 등사판을 이용하여 박기석의 집에서 약 1,000장을 인쇄하는 등 제2차 시위를 위한 준비가 각 학교별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11월 11일, 학생들의 예상대로 도내 각지로부터 소집되어 온 무장경찰들이 삼엄한 경계를 뚫으나 그날 광주고보의 경우 등교한 학생은 40여 명에 불과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경찰은 일단 시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산했다. 결전의 날인 12일 오전 8시 경 오쾌일은 광주고보 김안진에게 약 500장, 강민섭에게 약 200장, 광주농고 조길룡에게 약 300장을 나누어 주었다. 김안진은 등교하자마자 김삼석·김동섭·송만수·김홍남 등에게 수십 장씩 나누어주고 시위할 때 살포하기로 하였다. 조길룡도 등교하여 김안진으로부터 받은 격문을 한문옥·김남철·박종주 등에게 나누어주고 살포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12일 오전 9시 첫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광주고보 5학년 을조의 교실에서 김항남이 "교우들이 구속되어 철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나가서 시위하자"고 외치자 반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호응하여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으며, 김안진·최상을·김삼석·김동섭·송만수·김홍남 등도 학생들에게 호소하여 함께 교실을 박차고 나갔다. 이어 전교생이 학교 창고에 있는 농기구와 운동기구 등을 하나씩 들고 일제히 교문을 나와 시내로 진출하였다. 광주농고도 수업 시작 종소리를 신호로 "철창에서 신음하는 교우를 구하자"라는 조길룡의 제창과 김남철·최정기 등 10여 명의 선도로 한국인 학생 전원이 일제히 교문을 박차고 나왔다. 시내로 나온 300여 명의 광주고보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며 중심가를 누볐다. 김홍남은 학교 교정에, 김동섭과 송만수는 교문 앞 도로에 격문을 뿌렸다. 11월 3일의 시위 때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였다. 시위대의 목표는 광주형무소였다. 부당하게 잡혀서 억울하게 고생하는 동료학생들을 구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수기옥정 우체국에서 궁동을 거쳐 형무소로 향

하였다. 도중에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에 이르러 시위에 합류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삼석은 광주여고보 부근 도로에, 강민섭은 광주여고보 숙직실 옆에 격문을 살포하였다. 이에 응하여 여학생들도 일제히 교실을 뛰쳐나와 교문으로 달려나갔으나 경찰과 교직원의 제지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교정에서 기세를 올렸다. 이들은 다음 날부터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또한 광주사범학교에 이르러서는 시위에 가담할 것을 촉구하며 3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갔으나 교사들의 제지로 좌절되었다. 당시 3학년생들은 부속 보통학교에서 교생실습 중이었는데 둘째 시간이 끝나고 30여 명의 교생들이 학교로 물려오는 등 동요를 보이자 교장은 실습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광주여고보와 광주사범 학생들의 지원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계속 광주형무소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미 그곳에는 대규모의 경찰병력이 기다리고 있었다. 11월 3일 대시위 이후 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인근 지역의 경찰력까지 동원하였던 것이다. 출동한 경찰과 대치한 시위대는 트럭까지 동원한 경찰의 무력에 밀려 포위되었으며 결국 강제해산을 당하면서 190여 명의 학생이 잡혀갔다. 광주농고 학생들도 150여 명이 시내로 진출하여 격문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며 광주형무소로 향하였다. 그러나 광주고보에 이르러 출동한 무장경관들에게 포위·저지 당하였으며 역시 강제 해산을 당하면서 60여 명의 학생이 잡혀갔다.

제2차 시위가 있는 뒤 광주에 있는 모든 한국인 중등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무차별 검거선봉이 불면서 탄압이 본격화되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학생 수가 500여 명이었는데 과반수에 가까운 수가 검거되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각군의 사회청년단체 간부 160여 명이 광주에서의 대시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검거되었다. 한꺼번에 수백 명이 잡혀 들어오자 삼시간에 경찰서 유치장은 초만원이 되었으며 감방이 모자라 학생들은 경찰의 무도훈련장이었던 도청 앞 무덕전에 수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시위 구속자 취조 과정에서 각 학교에 있던 비밀결사가 탄로 난 성진회·독서회·소녀회 등에 관련된 학생들이 다음해 1월까지 계속 검거되었다. 심지어 오쾌일·유치오·임주홍 등은 동경에서 잡혀 오기까지 하였다. 이 가운데 구속된 학생은 200여 명이었는데 이는 천여 명이 되는 당시 광주 지역의 중등학교 학생 수의 5분의 1에 가까운 것이었다. 경찰의 탄압과 발맞춰 학교 당국은 무더기로 학생들을 징계하였다. 광주고보에서는 300여 명의 학생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광주농고도 시위에 참가한 학생 전원을 무기정학에 처하였다. 광주여고보는 시위에 참여한 17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이에 항의하여 동맹휴학에 참여한 64명에 대해서도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광주사범은 문제 학생 37명을 일시 귀향시켰다가 이듬해 3월 1명을 더 추가해 38명을 퇴학 처분하였다.

이와 동시에 총독부 당국은 제2차 시위가 있는 직후인 13일부터 보도통제를 취하여 12월 27일까지 거의 2개월 가까이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는 학생들의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인해 항일민족운동이 고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았다. 오히려 보도가 통제되자 갖가지 유언비어가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일본순사가 한국인 학생을 칼로 쳐죽였느니, 폭동이 발생하여 광주가 쑥대밭이 되었느니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사람과 학생들을 자극하였으며 결국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제 2차 시위운동 이후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으나 막상 친원지인 광주 지역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많은 학생과 사회 단체 간부들이 구속됨에 따라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학생들의 투쟁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 잡혀 들어간 학생들은 옥중·법정 투쟁을 벌이고 남아 있던 학생들은 이듬해 1월 백지동맹 등을 일으켰다.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던 광주지역의 각 학교는 1930년 1월 8일 개학하였다. 휴교 때문에 2학기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교 당국은 개학 다음날부터 시험을 실시하였다. 광주고보에서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시험을 거부하여 유기량·박남철·손동출·정세면·오세출·김부득 등 17명이 퇴학을 당하였으며, 광주여고보에서도 3학년생 전부가 이광춘 등의 주도로 백지동맹을 단행하여 권순례·유황순·최풍오·정임숙·조정애 등 15명이 퇴학을 당하였다.

또한 광주고보에서는 제 3차 시위운동은 계획하다 발각되어 1월 16일 48명이 무더기로 퇴학을 당하였다. 당시 광주고보는 1학년을 제외한 전체 학생이 400여 명이었는데 2·3·4·5학년 가운데 졸업한 학생이 16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300여 명에 가까운 학생이 투옥되었거나 퇴학을 당했다는 이야기이다. 광주 수피아 여학교에서도 총독부 정무총감이 광주를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시위운동을 일으키려고 계획하였다가 발각되어 정옥순 등 다수의 주모자가 검거되고 1월 31일부터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다. 한국인 학교뿐만 아니라 일본인 여학교인 광주고등여학교에 다니던 7명의 한국인 가운데 차인희·강정민·최공·정소진 등 4명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진 퇴학하기도 하였다.

제1차 시위운동과 마찬가지로 제 2차 시위운동의 기본적인 동력은 식민지 노예교육을 거부하며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확립하고 나아가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는 학생들의 항일투쟁의지였다. 이는 시위 도중에 뿌려진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식민지 노예교육을 철폐하라'는 등의 격문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격문들이 비록 장재성과 몇몇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전체 학생들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민족의식은 암담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과 사회과학 연구 그리고 유학생 선배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나 광주고보의 경우 한문과 조선어를 가르쳤던 송홍 선생의 영향도 적지 않았

다. 그는 한말의 거유로 교육운동에 투신하여 광주고보에 재직하면서 항상 한복을 즐겨 입었고 수업시간에 기회만 있으면 몰래 한국사를 가르치고 세계 정세와 민족의 진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역설하였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발발하여 수많은 학생들이 구속되어 갈 때마다 가슴 아파했고 학생들을 격려해 주었다.

11월 3일의 사건 이후 도내 각 군으로부터 증원을 받기까지 무장경찰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11월 12일의 대시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20년대 중반 이후 맹휴투쟁과 비밀결사활동을 통해 축적되어 온 학생운동의 조직적인 역량 때문이었다. 재판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 2차 시위의 주동 인물은 대부분 성진회·독서회와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들의 조직 역량과 일반 학생들의 민족의식에 바탕한 투쟁 역량이 결합되어 대규모 시위가 가능했던 것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보다 먼저 일어났던 평북 용천 불이흥업회사 서선농장의 소작쟁의나 원산총파업과 같은 농민·노동자의 대규모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데 비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파급효과도 더 컸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각 학교 단위 학생들의 조직 역량과 신간회·조선청년동맹 등 전국 규모 사회·청년단체의 조직 역량이 결합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전국적 파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재성·장석천·강석원·국채진·나승규 등이 신간회와 각 지역 청년동맹의 간부였던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렇듯 광주에서의 제 2차 투쟁을 계기로 학생운동은 단순한 집단적 가두투쟁의 단계를 넘어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목적 의식적인 정치투쟁·대중투쟁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적인 항일민족운동으로 가는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이는 "전국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하라"는 격문의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제 4 장 광주학생운동의 전국적 파급

제 1 절 광주학생운동의 전국적 파급

광주에서 타오른 불길은 제일 먼저 인근 전남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식민지 노예교육을 거부하며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확립하고 나아가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열망하는 것은 광주지역 학생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보도통제로 인해 다른 지역은 떠도는 풍문으로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만 전남지역의 학생들은 인편을 통해 상세히 사건의 경과를 알 수가 있었다. 광주에서의 대시위에 호응하여 제일 먼저 시위가 일어난 학교는 목포상업고등학교였다. 목포상업고등학교에 이어 나주농업보습학교·나주보통학교·영산포보통학교·송정리공민학교·함평농잠보습학교·강진대구보통학교·창평보통학교·여수수산학교·옥과보통학교·담양보통학교·보성보통학교·순천농업보습학교 등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나아가 시위 계획은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청년운동가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져 3월1일에는 합평청년동맹 위원장과 청년동맹원 3명이 격문을 등사하다 발각되어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불길은 광주에서 전남지역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적 확산뿐만 아니라 참여층의 확산, 조직력의 확산, 운동이념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울에서는 조선청년총연맹·중앙청년동맹·조선학생과학연구회·근우회, 신간회·천도교 등 종교단체·언론계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사회운동가들이 학생들과 연계하여 1929년 12월에 1차 대규모의 동맹휴학·항의집회·만세시위가 있었으며, 각 학교의 휴교에 이은 겨울방학으로 일단 소강상태로 들어간 학생들의 투쟁의지는 해를 넘긴 1930년대에 들어와 더욱 폭발적으로 전개되어 30개에 가까운 학교에서 3,000여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한 제2차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서울에서의 시위를 계기로 학생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30년 1월 중순부터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 지역 중등학교학생 뿐만 아니라 보통학교학생까지 참여하였으며 투쟁의 형태도 시험거부·백지동맹·동맹휴학·격문살포·교내시위·가두시위 등 다양해 졌다. 1930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학생운동은 다음과 같다.

서울 각 학교의 상황(1930. 1. 8)

학 교 명	출석자	결석자	결석률(%)
협성실업학교	192	62	24
숙명여고보	414	35	8
제일여고보	344	22	6
제일고보	769	59	7
청년학관	116	96	45
동덕여고보	201	29	13
도립상업학교	433	25	5
법학전문학교	120	73	38
중앙고보	531	171	24
배화여고보	206	13	6
휘문고보	668	134	17
제이고보	631	63	9
중동학교	1044	509	33
양정고보	389	121	24
보성고보	544	153	22
배재고보	690	60	8

학 교 명	출석자	결석자	결석률(%)
이화여고보	286	26	8
선린상업학교	199	10	5
남대문상업학교	230	44	16
합 계	9005	1695	16

서울 각 학교의 상황(1930. 1. 20)

학 교 명	휴교여부	출석자	결석자	피검자
보성전문학교	24일 개교			3
휘문고보		130	500	0
청년학관		110	97	4
숙명여고보		338	68	1
배화여고보		200	24	1
협성실업학교	21일 개교			18
동덕여고보	무기휴교			7
경신학교		71	406	17
중동학교		794	769	198
진명여고보		329	66	0
경성여자상업	무기휴교			15
실천여학교	무기휴교			12
정신여학교		65	31	13
근화여학교	24일 개교			25
태화여학교	오전부	27	36	11
여자미술학교	이상없음			0
경성보육학교	이상없음			0
배재고보		496	281	22
이화여고보	1개월간 휴교			47
이화전문학교	무기휴교			0
이화보육학교	무기휴교			0
경성전기학교	이상없음			8
실업전수학교		91	65	1
향상기예학교	이상없음			1
고학당	무기휴교			
합 계		2648	2343	406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지역별 상황(1929.11~1930.3)

도 명	학 교 명	투쟁일자	내용
경기도	송도고등보통학교	1929. 12. 10	맹휴
		1930. 1. 9	가두시위
경기도	개성학당상업학교	1929. 12. 13	맹휴
	개성상업학교	1929. 12. 13	진정서 제출
충청북도	인천상업학교	1929. 12. 14	맹휴
		1929. 12. 13	맹휴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1930. 1. 17	교내시위
		1930. 1. 9~10	가두시위
	미리흙여학교	1. 25	백지동맹
		2. 8	가두시위
	마석보통학교	1930. 1. 10	가두시위
	1930. 1. 11~12	교내시위	
	청주고등보통학교	1930. 1. 21	가두시위
	청주농업학교	1930. 1. 21	가두시위
충청남도	청주고등여학교	1. 25	맹휴
		1930. 1. 25	한국인학생 맹휴
	청천보통학교	1930. 1. 25	격문 살포
	대소원보통학교	1930. 2. 7	가두시위
	음성보통학교	2. 10	격문 살포
		1930. 2. 10	시위 발각
	무극보통학교	1930. 2. 16	시위 발각
	공주고등보통학교	1929. 12. 2	맹 휴
	영명학교	1929. 12. 7	맹 휴
	영명여학교	1929. 12. 13	맹 휴
석문보통학교	1930. 1. 18	시위 발각	
홍성공업전수학교	1930. 1. 19	시위 발각	
대전상업보습학교	1930. 1. 21	한국인학생 맹휴	
황해도	조치원농업보습학교	1930. 1. 22	시위 발각
	예산농업학교	1930. 1. 22	맹휴 발각
	대전제이보통학교	1930. 1. 24	시위 발각
	부여농업보습학교	1930. 1. 26	격문 살포
	신창보통학교	1930. 2. 4	맹휴 발각
	해주고등보통학교	1930. 1. 21	교내시위
	장연보통학교	1930. 1. 24	시위 발각
	명선고등보통학교	1930. 1. 25	격문 살포

도 명	학 교 명	투쟁일자	내용
황해도	옹호도수산학교	1930. 1. 26	요구서 제출
	사리원농업학교	1930. 1. 27	시위 발각
강원도	춘천고등보통학교	1929. 12. 19	교내시위
	춘천농업학교	1930. 1. 24	시위 발각
강원도	철원보통학교	1930. 1. 27	격문살포
전라북도	전주여자고등보통학교	1930. 1. 19	시위 발각
	고창고등보통학교	1930. 1. 20	시위 발각
	전주공업보습학교	1930. 1. 20	시위 발각
	정읍농업학교	1930. 1. 21	경찰서밖 시위 / 맹휴
	신흥학교	1930. 1. 21	시위발각
	기전여학교	1930. 1. 25	가두시위
		1930. 1. 24	학교뒷산시위
	삼례보통학교	1. 27	단식동맹
		1930. 2. 12	시위발각
	영신학교	1930. 2. 14	일부학생회시위
백산보통학교	1930. 2. 16	시위 발각	
전라남도	목포상업학교	1929. 11. 19	한인학생가두시위
		11. 22	한인학생가두시위
나주농업보습학교	1929. 11. 27	가두시위	
	1930. 2. 10	가두시위	
나주보통학교	1929. 11. 27	가두시위	
	1930. 2. 10	가두시위	
영산포보통학교	1929. 11. 29	맹 휴	
송정리공민학교	1929. 11. 30	가두시위	
함평농잠보습학교	1930. 12. 9	시위발각	
함평보통학교	12. 12	맹휴	
	1930. 12. 9	시위발각	
광주고등보통학교	1930. 1. 9	백지동맹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1930. 1. 9	백지동맹	
대구보통학교	1930. 1. 18	맹 휴	
창평보통학교	1930. 1. 19	시위발각	
여수보통학교	1930. 1. 23	격문살포	
여수수산학교	1930. 1. 28	맹 휴	
수피아여학교	1930. 1. 28	시위발각	
담양보통학교	1930. 2. 3	시위발각	
정명여학교	1930. 2. 7	시위발각	
보성보통초등학교	1930. 2. 18	시위발각	
순천농업보습학교	1930. 2. 25	맹 휴	

도 명	학 교 명	투쟁일자	내 용
평안남도	송실전문학교	1929. 12. 14	백지동맹
		1930. 1. 16	맹 휴
평안남도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	1930. 1.21~22	가두시위
		1929. 12. 26	맹 휴
		1930. 1. 21	교내시위
		1930. 1. 22	가두시위
	광성고등보통학교	1929. 12. 16	맹 휴
		1930. 1.21~22	가두시위
		1930. 1. 23	기숙사 시위
		1930. 1. 24	항의문 제출
	평양농업학교	1929. 12. 16	맹 휴
		1930. 1. 22	가두시위
		1929. 12. 16	맹 휴
	송인학교	1930. 1. 14	시위 발각
		1930. 1. 20	교내시위
		1930. 1.21~22	가두시위
		1930. 2. 3	항의문 제출
	평양고등보통학교	1929. 12. 17	백지동맹
		1930. 1. 21	교내시위
		1930. 1. 22	가두시위
		1929. 12. 17	맹 휴
	송실중학교	1930.1.21~22	가두시위
		1930. 1. 23	기숙사 시위
	진남포상공학교	1930. 1. 19	시위 발각
	송의여학교	1930.1.21~22	가두시위
		1930. 1. 23	교내시위
	정의여학교	1930. 1. 21	교내시위
		1930. 1. 22	가두시위
		1930. 2. 17	맹휴
		1930. 1. 21	평양사범학교
	광성보통학교	1930. 1.22~23	
		1930. 1.22~23	종로보통학교
	송덕보통학교	1930. 1.22~24	
		1930. 1. 22	상주보통학교
		1930. 2. 5	
		1930. 1. 22	안주농업학교
	명륜여자보통학교	1930	
		1930. 1. 27	남산여자보통학교
평안남도	입석보통학교	1930. 1. 27	시위 발각

도 명	학 교 명	투쟁일자	내 용
평안남도	인화학교	1930. 2. 4	시위 발각
		1930. 2. 5	시위 발각
	북창보통학교	1930. 2. 5	시위 발각
		1930. 2. 5	시위 발각
평안남도	자산보통학교	1930. 2. 15	시위 발각
		1930.2.23	시위발각
평안북도	신성중학교	1929.12.12	가두시위
		1930.1. 23	가두시위
	신의주고등보통학교	1930. 1. 8	교내시위
		1930. 1. 25	교내시위
		1930. 2. 20	맹 휴
		1930. 1. 18	가두시위
	오산고등보통학교	1930. 1. 23	교내시위
		1930. 1. 27	교내시위
	보성여학교	1930. 1. 27	시위발각
		1930. 2. 15	가두시위
	영변농업학교	1930. 2. 3	시위발각
		1930. 2. 10	교내시위
	박천보통학교	1930. 2. 15	시위발각
		1930. 2. 11	시위발각
	영변보통학교	1930. 2. 12	교내시위
		1930. 2. 13	시위발각
	삭주보통학교	1930. 2. 14	시위발각
		1930. 2. 15	가두시위
	운전보통학교	1930. 2. 15	가두시위
		1930. 2. 15	가두시위
	태천보통학교	1930. 2. 25	교내시위
		1930. 3. 1	시위발각
	오산보통학교	1930. 2. 27	교내시위
		1930. 2. 27	교내시위
	송덕중학교	1930. 2. 27	교내시위
		1930. 2. 27	교내시위
	송덕여학교	1930. 3. 5	시위발각
		1930. 2. 25	고성보통학교
	소림보통학교	1930. 1. 17	시위발각
		1930. 1. 24	성명서 발각
경상북도	대구여자고등보통학교	1930. 1. 17	시위발각
		1930. 1. 24	성명서 발각
	대구고등보통학교	1930. 1. 17	시위발각
		1930. 2. 7	시위발각
	대구농림학교	1930. 3. 3	맹 휴
		1930. 3. 4	맹휴발각

도 명	학 교 명	투쟁일자	내 용
경상남도	동래고등보통학교	1929. 12. 20~21	맹 휴
		1930. 1. 11	맹 휴
		1930. 1. 18	맹 휴
		1930. 1. 21	맹휴 발각
경상남도	부산제이상업학교	1930. 1. 7~8	격문 발포
		1930. 1. 9	맹 휴
	1930. 1. 13	시위발각	
	부산여자고등보통학교	1930. 1. 7~8	격문살포
		1930. 1. 11	맹휴발각
	1930. 1. 14	맹 휴	
	부산상업실천학교	1930. 1. 15	맹 휴
	진주고등실천학교	1930. 1. 17	가두시위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	1930. 1. 17	가두시위
		1930. 1. 25	시위발각
	진주제일보통학교	1930. 1. 17	가두시위
	진주제이보통학교	1930. 1. 18	시위발각
	자원여학교	1930. 1. 18	시위발각
	진주농업학교	1930. 1. 20	시위발각
	통영보통학교	1930. 1. 21	시위 발각
	사천보통학교	1930. 1. 21	시위 발각
	통영수산학교	1930. 1. 22	교내시위
	1930. 1. 27	교내시위	
	진영보통학교	1930. 1. 22	시위발각
	원동보통학교	1930. 1. 23	시위발각
철원보통학교	1930. 1. 23	시위발각	
연산보통학교	1930. 1. 23	시위발각	
김해보통학교	1930. 1. 24	격문살포	
1930. 2. 2	시위박각		
김해농업학교	1930. 1. 24	격문살포	
	1930. 2. 1	학교밖시위	
	1930. 2. 6	교내시위	
김해합성학교	1930. 1. 24	시위발각	
	1930. 2. 2	시위발각	
함경남도	원산상업학교	1929. 12. 13	백지동맹
		1929. 12. 14	한국인여학생 맹휴
	1930. 1. 17	일부학생 시위참여	
	함흥고등보통학교	1929. 12. 16	교내시위
	영생학교	1929. 12. 16	교내시위
1930. 1. 11	가두시위		

도 명	학 교 명	투쟁일자	내 용	
함경남도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1929. 12. 16	교내시위	
		1930. 1. 11	가두시위	
함경남도	함흥농업학교	1929. 12. 16	교내시위	
		1929. 1. 14	가두시위	
	원산청년학관	1930. 1. 17	가두시위	
		1930. 1. 17	가두시위	
	신상보통학교	1930. 1. 27	교내시위	
		1930. 2. 9	시위발각	
	인흥보통학교	1930. 2. 9	맹휴발각	
		1930. 2. 18	교내시위	
	함경북도	경성고등보통학교	1929. 12. 23	시위발각
			1930. 1. 25	가두시위
1930. 1. 27		가두시위		
청진상업보습학교		1930. 1. 21	시위발각	
		1930. 1. 27	교내시위	
회령상업학교		1930. 1. 21~22	시위발각	
		1930. 3. 5	맹 휴	
보흥여학교		1930. 1. 21~22	가두시위	
회령공업보습학교		1930. 1. 24	동맹휴학	
경성농업학교		1930. 1. 25	가두시위	
주남보통학교		1930. 1. 28	가두시위	
학남보통학교		1930. 1. 29	시위발각	
성진보통학교		1930. 2. 3	시위발각	
명간보통학교		1930. 2. 3	시위발각	
어대진보통학교	1930. 2. 5	교내시위		
어랑보통학교	1930. 2. 5	교내시위		
주을보통학교	1930. 2. 6	가두시위		
	1930. 2. 22	가두시위		
1930. 2. 26	가두시위			
덕산보통학교	1930. 2. 8	시위발각		
화대보통학교	1930. 2. 8	시위발각		
청진고등여학교	1930. 2. 10	한국인학생시위발각		
삼향학교	1930. 2. 10	가두시위		
주북보통학교	1930. 2. 25	교내시위		
	1930. 3. 3	시위발각		
	1930. 2. 25	가두시위		
함경북도	학동보통학교	1930. 2. 25	가두시위	
		1930. 3. 10	교내시위	

(광주에서의 1·2차 시위운동과 서울에서의 1·2차 시위운동은 제외)

제 2 절 해외로의 파급

학생들의 투쟁은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까지 파급되어갔다. 그 가운데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간도 지역의 호응이 가장 컸다. 이 지역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상을 알게된 것은 12월 하순경으로 방학으로 귀향했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 소식을 전하면서였다. 그리하여 1월 22일 길림·연길한인학우회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상을 널리 알렸으며 드디어 28일 용정 은진중학교를 시작으로 동아학교·동흥중학교·대성학교·명신여학교·동흥소학교·송신학교·중앙학교·신흥학교·약수동학교·구룡평학교·용정광명학교·현립제1학교 등에서 격문을 뿌리거나, 만세시위가 일어나 수많은 학생들이 공안국에 잡혀갔다. 이처럼 간도지역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동조하는 시위운동이 주로 벌어졌다면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각종 독립운동단체들이 중심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길림에서는 국내 운동에 호응하여 재만 한인 반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였으며, 상해에서는 국내 학생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해에 있는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임시 각 단체연합회를 조직하여 조선학생운동을 지원하고 진상을 세계에 알려 각국의 동정을 환기시킬 것 등을 결의하였다. 한편 일본 동경에서는 동경유학생학우회의 주최로 조선인 학생 200여 명이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연설을 하다 190여 명이 경찰에 잡혀가고 재일본 조선노동총연맹이 모임을 가지려다 사전에 발각되어 70여 명이 검거되었다.

오오사카에서는 오오사카 유학생학우회와 오오사카 조선노동조합 등이 항의집회를 갖고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에 항의문을 발송하였다. 이밖에 러시아와 미주지역에서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상을 신문에 게재하거나 시위학생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을 비판하는 등의 호응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광주에서 시작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파급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제 3 절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계승

광주학생운동은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항일민족운동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에 학생운동이 활발해졌을 뿐 아니라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광주 고보의 후신인 광주서중학교의 후배들이 선배들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아 직접 항일민족투쟁에 나섰다. 이른바 "제2차 광주독립운동"이라 불리는 무등회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학생들의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37년 2월 광주고보 5학년생이었던 송홍호는 같은 학교 이규석, 최규원, 광주농업학교의 최석두, 최동섭, 흥태진 광주여고보의 김인순 등과 함께 독서회를 조직하고

농촌 계몽과 민족혼을 일깨워주는 책들에 관해 토론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문맹자에 대한 계몽운동 등을 펴 나갔다.

이 독서회는 이듬해에 발각되어 51명이 검거되었으나 다행히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이어 광주고보가 광주서중학교로 명칭이 바뀐 해인 1938년 5월 기환도·나금주·주하준 등이 중심이 되어 다시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독서발표는 간디라는 별명을 가진 기환도가 주로 큐리부인전·간디전 등 조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의 위인전기에 대해 하였는데 장소를 바꾸어 가며 행해진 이러한 독서와 토론과정을 통해 회원들은 민족의식을 키워나갔다. 무등회는 이 독서회를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1939년 5월 기환도·나금주·주하준·유몽룡·남정준·주만우·강한수 등이 결성하였다. 기밀유지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완전한 비밀결사로 조직을 바꾼 것이다. 회의 이름인 무등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므로 행동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서중혼으로 무장하고 영웅적인 선배들의 얼을 전교 학생들에게 심어 줄 것.
2. 일제식민지정책 반대투쟁에 젊음을 바칠 것.
3. 주체성을 기르기 위해 독서 운동을 전개할 것.
4. 동지를 위해 보안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길 것.

이들의 활동은 학교 일상생활의 공간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강당 뒤나 운동장 구석진 곳 또는 무기고 뒤나 온실 안 등 학교 당국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광주학생독립운동에서의 선배들의 영웅담과 임시정부의 활동과 일제의 식민지 차별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반일 감정을 북돋웠다. 무등회는 기환도·주하준·나금주 등 일부 회원들이 졸업하게 되어 송별회를 갖는 것을 계기로 1940년 3월 재정비회를 가졌으며 1941년 12월 유몽룡·주만우·남정준·강한수·윤재춘·윤봉현·기원홍·김동수 등이 모여 다시 재정비 강화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동지를 규합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사이 연락 책임을 맡았던 유몽룡이 매주 학교에 제출하는 일기장에 일제의 식민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적었다가 문제가 되어 퇴학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무등회는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주만우가 담양 무정보통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조선인 동료 교직원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다가 일본인 교사의 밀고로 검거된 것을 계기로 조직이 드러나 1942년 1월 유몽룡·강한수·남정준·윤봉현·윤재춘·김동수 등이 구속되었으며 만주로 도피하던 기원홍도 잡혀와 구속당하여 그해 12월 재판에서 유몽룡은 징역 1년 6개월 주만우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제1차 무등회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무등회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조직이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었다. 1942년 5월 신균우·기영도·박화진·배종국·이민수·오복렬·조병대·박하주 등 20여 명이 모여 무등회를

재건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패망을 예상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까지 구상하였다. 학교 교련 교육이 부당하더라도 장차 독립의 시기가 도래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재의 고통을 참고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제의 군사교육을 역이용하여 무력항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영도는 또한 독립한지 1주일만에 독일에 멸망한 폴란드의 예를 들며 조선이 독립을 했을지라도 영구히 독립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 "조선의 독립과 독립후의 국가경영은 가능하다 우리 청소년들은 철학·경제·정치·사상 등의 문제에 대해 부단히 연구를 하고 실력을 양성하여 조선민중에게 선전, 선동한다면 조선의 독립은 가능하다 우리는 극력으로 실력양성에 노력하여 독립목적의 완수에 매진하자"고 하여 독립의 시기가 도래하기까지 실력양성에 힘쓸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박화진은 조선민중이 일제히 봉기하는 시기까지 서중학교 학생들에게 독립의식을 주입 시켜 그들을 독립투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무동회의 당면 임무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무동회원들은 우선 일제의 민족어 말살정책과 식민지 차별정책을 학교 내부에서 부각시키며 싸워 나갔다. 당시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삼용은 내선일체 교육에 광분하였던 에노모도 교장 배척 운동의 일환으로 교장의 얼굴을 독사로 그려놓고 거기에는 "조선어를 상용하자"라고 쓴 회화를 변소와 창고 복도 등의 구석진 곳에 붙여 놓았다가 들통나 경찰에 구속되어 퇴학당하였으나 무동회 활동이 탄로 나지는 않았다.

또한 조병대는 봉안전에 있었던 일본 천왕부부의 사진액자에 지렁이를 집어넣어 기어다니게 하고 군국주의를 신봉하여 차별을 일삼는 일본 교관의 책상 서랍에 인분봉투를 넣어 학교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급생들 사이에 친일적인 분위기가 성행하자 신균우·배종국·박화진 등 무동회의 중심 회원들은 1943년 4월 본격적인 교풍 쇄신운동을 벌여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하급생들의 교실을 순회하면서 항일 운동의 필요성과 조선어 사용을 강조했다. 그런데 4학년 하급생의 밀고로 주동자들 몇 사람이 교장실로 불려가 심한 욕설과 체벌을 당한 계기로 혐의가 있는 하급생을 학교 무도장 뒤에 집합 시켜놓고 체벌을 가하였다. 이 사건이 있자 경찰은 주모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였고 학생들은 이에 맞서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내걸고 5월 21일을 기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1. 일어사용반대.
2. 창씨개명 반대.
3. 내선일체 반대.
4. 일본상품 불매.
5. 차별교육 반대.
6. 조선독립 만세.

당황한 학교측에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전교직원이 거리로 나가 학생들의 동교를 중용하였으며 경찰들은 비상 출동하여 맹휴 주모자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맹휴가 일어난 며칠 뒤 광주시법학교에서 열린 전남도내 모형 비행기 대회를 관람한 일부 서중학교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이 구타한 것을 계기로 일제히 검거 선봉이 불어 그해 8월까지 4개월에 걸쳐 350여 명이 잡혀갔다. 검거지역은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평양·동경·봉천·하얼빈까지 미쳤으며 졸업생들도 모조리 끌려와 광주경찰서에서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 나주·화순·담양 등 인근 지역의 경찰서와 주재소까지 분산 수용되었다. 일제는 다음 해인 1944년 2월까지 장기간 조사를 하면서 30여명을 구속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21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되고 10명이 재판을 받아 다음과 같은 형을 받았다.

- 남정준 : 징역 2년
- 기영도 신균우 : 징역 단기 2년 장기 4년
- 기원홍·배종국 : 징역 1년 6개월
- 박화진·오복렬·조병대 :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5년
- 박하주·이민수 :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일제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모두에게 악독한 고문을 가했다. 기환도는 수갑을 채운 채 심야에 경양 방죽으로 끌려가 물 속에 쳐 넣어 발길질로 채이며 고문을 당하다 갈비뼈가 여러 개 부서지는 증상을 입고 죽음을 당하였으며 강한수와 윤봉현도 재판을 받기 전에 잔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 죽었다. 주만우는 형을 살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고문치사를 병사로 조작하여 상부에 허위보고 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기도 하였다. 구사일생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방이 되어서야 풀려 나왔다. 이것이 소위 '제2차 무동회 사건'이다.

제2차 광주학생독립운동 이후에도 선배들의 항일독립정신을 이어받은 광주서중 학생들의 저항은 계속되어 이 학교 3학년생이었던 문병갑은 주위의 동급생을 중심으로 반일 시국담을 유포하여 일제 패전의 실상을 알리다가 반일 민족주의와 패전주의적 사상을 전파하였다는 이유로 1944년 6월 체포되어 단기 1년 장기 3년형을 받기도 하였다.

□ 결론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와 나주간을 통학하던 한·일 학생간의 충돌을 계기로 11월 3일 폭발하였다. 광주지역 중등학교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로 시작된 이 운동은 일제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맹휴투쟁 단계에서 집단적인 가두투쟁 단계로 발전하

였음을 의미하였다. 나아가 11월 12일의 제2차 시위는 신간회 광주지회 및 전남청년연맹 광주청년동맹 등 광주 사회 청년단체와 연계하여 학생 투쟁지도본부의 지도 아래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제2차 시위 직후 일제는 12월 27일까지 보도통제를 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해 보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나 광주에서 타오른 불길은 먼저 인근 전남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이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학생시위의 전국적 확대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12월 초순과 이듬해 1월 중순 두 차례 걸쳐 일어난 서울에서의 대규모 학생 시위였다. 서울에서의 제1차 시위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조선청년총동맹과 중앙청년동맹으로 이어지는 청년단체 조선학생전위동맹과 중앙청년동맹으로 이어지는 학생단체의 역할이 컸다.

한편 신간회에서 기도한 민중대회도 비록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에 그치고 말았으나 학생시위의 전국적 확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일제의 철통같은 경계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1930년 1월 개학하자마자 다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서울에서의 이 제2차 시위는 비교적 타격을 덜 받았던 여학생과 여성단체인 근우회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제1차 시위와 마찬가지로 연합투쟁의 형태로 조직적으로 전개된 측면이 강하였다. 학생시위는 12월초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하여 개성·인천·원산·평양·함흥·공주 등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으며 1월 중순부터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 지역 학교까지 확산되고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 지역 학교까지 확산되고 중등학교학생뿐만 아니라 보통학교학생까지 참여하였으며 투쟁의 형태도 시험거부·백지동맹·동맹휴학·격문살포·교내시위·가두시위 등 다양해 졌다.

또한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초기에 사회과학연구의 자유 학생의 자치권 획득 등 학내문제 해결과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확립 식민지 노예교육과 민족동화교육의 철폐를 주장하던 데에서 총독부 폭압정치 반대·일본제국주의 타도 등 일본 식민지 지배권력과 전면 충돌을 통한 민족의 독립획득을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며 그 방안으로 협동전선을 통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하고 국제정세까지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시야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적지 않은 지역이 지방 청년동맹과 신간회·근우회 지회 등 그 지역사회 청년단체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투쟁은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까지 파급되어 만주, 일본을 비롯하여 연해주, 미주지역까지 호응하였다. 비록 1930년 3월 1일 3·1운동 11주년을 맞아 일제의 대대적인 사전 검거령에 따른 탄압으로 인해 불꽃처럼 타오르던 학생들의 시위가 한 단계 수그러들었지만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후에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호응하여 각지에서 학생들의 항일민족운동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모두 194개교(전문학교 4개교 중등학교

136개교 보통학교 54개교)가 참여하였으며 참가학생 수는 54,000여 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광주 지역에서만 170여 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받았다. 실형을 받은 사람이 전국적으로는 수백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또한 533명의 학생이 학교로부터 자진 퇴학하였다. 아울러 233명이 무기 정학처분을 받았으며 298명이 강제로 전학하고 172명이 해외유학을 떠났다. 여기에 더하여 광주사범학교는 일제에 의해 1931년 3월 폐교를 당하기까지 하였다. 명실공히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던 것이다.

또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세계 대공황기와 맞물리면서 이후 학생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항일민족운동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대공황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직후인 1930-31년에 학생들의 동맹휴학이나 노동자들의 파업 농민들의 소작쟁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참가 인원에서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항일민족운동이 전 부문에 걸쳐 대중투쟁이 극도로 고양되었음을 의미하며 광주학생독립운동이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재판을 받거나 퇴학을 당한 학생들과 이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1930년대 초반부터 직접 청년·노동·농민운동에 뛰어들어 민족해방운동의 각 부문에서 활약하였던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장재성과 왕재일도 국내의 사회운동에 투신하여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비록 1930년대 중반 일본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식민지 조선이 전시동원체제로 재편되어 탄압이 극도로 가중되었지만 학생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반제·반전 비밀결사의 형태로 일제에 저항하였다. 더욱이 일제의 발악이 극에 달하는 1940년대에도 학생들은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을 확신하며 오히려 무장대를 조직하여 무력항쟁을 벌이거나 독립을 준비하며 실력을 양성하였다.

특히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의 하나였던 광주서중학교 학생들은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무동회를 조직하고 조국의 독립을 준비하는 동시에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차별정책에 대항하여 제2차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0년대 말~1930년대 초라는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운동세력이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이념적으로 일제의 억압에 대한 저항과 식민지 교육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사회주의 등 당시의 다양한 사상들이 중첩되어 전개되었으며 이후의 민족해방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해방이 된 뒤에도 그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5·18광주민중항쟁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운동을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해방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자신들의 식민지배가 조선에게 도움

이 되었으며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었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면 왜 식민지 조선의 학생들은 그렇게 고마운 일본에 대해 결사적으로 항쟁을 하였는가? 왜 보통학교의 어린 학생들까지도 조선의 독립을 외치며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였던가?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며 그때 가면 이 운동도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더욱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소중한 경험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심한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를 여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도전, 새 천년을 향한 청소년의 힘!"

11월 3일 - 11월 6일

학생의 날 주간

▷ 11월 3일(수) 오전 중 / 각급 학교

학생의 날 기념식 및 기념행사(학생회가 준비합니다.)

▷ 11월 4일(목) 6시 / 홍사단 본부 대강당

학생회의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위한 포럼

▷ 11월 6일(토) 오후 2시 - 6시 / 아시아공원(2호선 종합운동장역 1번출구)

1. 동아리축제(전시 및 설치물 : 2시 - 6시)

만화 전시, NGO탐방전, 색동회, 수화, DDR, 페이스페인팅, 걸개그림, 코스프레, 설문조사 등

2. 공연(3시 - 5시)

자양고등학교 · 중앙대학 그룹사운드, 댄스동아리 2팀, 랩그룹, 초청가수, 장기자랑, 풍물패, 청소년권리선언

3. 캠페인(2시 - 6시)

학생의 날을 아시나요?(게시판 활동), 기념품 배포, 홍보문건 배포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 고등부(KSCM)

주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교회관 608호
전화; 02)763-8776, 765-9749 / 팩스; 02)744-2748 / 통신; KKSCM(천)

□ 홍사단 - 고등학생아카데미

주소; 서울 종로구 동숭동 1-28
전화; 02) 743-2511 / 팩스; 02) 743-2515 / 통신; yka80(천)

□ 서울YMCA - 고교Y, 녹색청소년단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전화; 02)725-5828 / 팩스; 02)725-1413 / 통신; simin123(천)

□ 전교조 참고육실천위원회

주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115 대영빌딩 3층
전화; 02) 675-6181 / 팩스; 02) 675-6184 / 통신; chambb(천)

□ 대한성공회 노원나눔의 집

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4동 111-340
전화; 02) 938-7942 / 팩스; 02) 930-3924 / 통신; nanum01(천)

□ Zing Communications Inc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57-28번지 정연빌딩 2층
전화; 02) 581-0156 / 팩스; 02) 598-9613 / www.zing.cc



학생의 날 노래

이은상 작사
안병소 작곡

Maestoso

1. 우 리 는 이 나 라 자 신 이 다
2. 우 리 는 기 인 찬 자 겸 겸 이 다
3. 우 리 는 피 뉘 는 학 생 이 다

mp

예 서 내 - 삼 과 뽕 받 고 자 랐 다 - 내
보 라 전 - 령 의 빚 찬 가 습 찾 다 - 내
오 직 바 를 길 만 이 우 리 의 생 명 - 모

Con appa *Molto cresc* (*Piu allargando*)

국 토 위 해 서 라 면 물 불 속 에 라 도
겨 레 위 해 서 라 면 충 칼 밑 에 라 도
이 자 룡 처 나 가 자 정 의 의 했 불 읍

똥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